

## 국어학사상의 위치

김 차 균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 1. 머리말

이 글은 외설 최현배의 국어학 연구에 대한 업적이 국어학사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비춰 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말본’, ‘한글갈’, ‘조선 민족 갱생의 도’를 외설 학문의 3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조선 민족 갱생의 도’는 외설의 나라와 겨레 사랑의 정신과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며, 철학과 교육 사상이 글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대하여 분석한 글로는 홍이섭(1963)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겨레 사랑의 정신과 철학이 외설의 국어학 연구에 사상적, 철학적 및 논리적인 바탕이 되고 추진력이 되었기 때문에, 외설의 국어학적인 업적이 방대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것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외설의 유고인 ‘한글만 쓰기의 주장’은 글자 정책에 관련된 글로, 그 내용은 한글 전용의 당위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다. 우리 겨레의 글자 살이가 이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시경의 유업을 이어 받아 한글 전용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외설에 힘 입은 바 크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한 혼용론자 쪽의 반발도 즐기차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꼭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필자는 다만 외설의 국어학적인 업적의 양대 봉우리라 할 수 있는 ‘우

리 말본'과 '한글갈'에 관심을 한정시키기로 한다.

'우리 말본'과 '한글갈'은 국어 문법서 가운데서 현대의 문법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학문적인 기여를 한 책으로, 만대에 사표(師表)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위대한 업적에 필자가 관심을 기울인 지는 30여년 전이었다. 그 때는 글쓰는 이의 스승(눈되 허 응)의 스승이 쓴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읽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읽었고, 그 뒤에 국어학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언어학도로서 가장 큰 보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짐에 따라 이 책들을 두 번째로 읽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책들을 넘겨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중요한 요지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세월이 상당히 흘러 갔다.

필자는 올해 봄에 이르러서 외솔의 국어학 사상의 위치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됨에 따라 다시 이 두 책을 읽게 되었다. 다만 그 요구가 철저한 분석과 비판이 아니라, 원고지 100장 앞뒤의 글을 쓰되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렸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이 글이 완성되어 나오게 되면, 국어학을 공부하는 전문 학도들에게는 물론이고, 겨레의 정기를 드높이는 데에 일조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문에 천학비재한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 보지도 않은 채 감히 이 글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의 학문 또는 식견의 미숙으로 외솔 스승에게 오류가 없지 않으리라 여겨지지만, 이 글이 외솔 학문의 이해에 새로운 촉진제가 되어 줄 수만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문법 학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점 필자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 2. 외솔을 보는 눈

현대의 격변하는 문법의 여러 조류 속에 관찰자 자신의 눈을 두고, 언어학을 바라보면, 어지럽다 못해 현기증이 날 정도이지만, 자신을 좀더 먼 거리에 두고 언어학을 바라보면, 변화만 좇다가 쉽사리 지쳐버리는 현대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측은하게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2,500여년 전 인도의 문법 성인들의 언어의 기술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을 갖게 되고,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로 이루어진 '훈민정음'의 음운학은 세계의 음운학을 이끌어 갈 만한 잠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인 외솔의 학문적인 업적인 '우리 말본'과 '한글갈'의 국어학 사상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어학 관계의 연구와 나라 밖의 일반 언어학 및 여러 개별 언어학적인 연구에서 받은 지식,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자

들 사이의 학문적인 대립 및 교류와 그 영향, 그리고 외술의 연구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등을 죄다 연구해야겠지만, 거기에까지 필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이 짧은 글 속에서 그것을 다 다룰 수도 없다.

외술의 '우리 말본'에는 거의 인용이 없어서 다른 학자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앞으로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외술의 거대한 문법이 체계가 잘 짜여서 여러 분야가 올바르게 제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앞선 학자에 대하여 국어학사를 기술하는 이들은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또는 업적)에 대하여 호의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다. 호의적인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독창적이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빚나갔을 때는 그것에 실망하는 수가 있으며, 그 때문에 그의 약점은 묻어 두고 싶어 한다. 그에 대하여 처음부터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서 발견되는 조그만 사실이라도 그것을 불리한 쪽으로 돌려서 확대해 나가고, 그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 업적 전체를 과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나친 호의나 적대 감정은 국어학사 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의 국어학 또는 언어학은 8·15 이후에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싸여서, 자기의 선배나 스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고 감싸기만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적어도 표면적으로 터뜨리는 데는 모두가 상당한 자제력을 나타냈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국어학사를 쓰는 이들의 사고력이 빚나가고 있다. 초창기의 현대 문법의 대가들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시경, 최현배 등에 대하여는 고의적인 평가 절하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고, 그것이 우리 선배 학자들의 진정한 학문적인 이해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나의 보기를 들면 고영근(1992:143~162)은 외술의 '우리 말본'이 하이제(Johan Christian August Heise(1764~1829))의 '독일 문전'(Deutsche Grammatik)과 스위트(Henry Sweet(1845~1912))의 '새 영어 문법'(New English Grammar), 그리고 심리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인 분트(Wilhelm v. Wundt(1832 1920))의 '민족 심리학'(Volkerpsychologie) 등 네 사람의 영향을, 그것조차 일본 학자 야마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오직 한 사람의 일본 학자 야마다(1922)의 문법을 베끼다시피 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글을 써 놓았다. 물론 이 글은 고영근의 외술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에게서 더 세심하고 확충된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같은 대상을 평가하고 있는 글이지만, 권재선(1988:849-892)을 읽어 보라. 그는 국내외의 문법 학자들에게서 외술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진지하고, 정확하며, 소상하게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권재선의 이러한 성실성은, 외술 한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와 이계의 거의 모든 국어학자들에 대하여 일관되어 있다.

외술은 낱말의 정의와 품사 분류의 논리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마다의 이론을 응용하였지만, 아마다 문법에는 없는 어편씨(관형사:뒤에 매김씨로 고침)를 인정했으며, 아마다의 존재사를 그림씨 안에 넣는 한편, 존재사 자리에 잡음씨(지정사)를 바꿔 넣었다(권재선 1988:870). 외술은 이와 같이 다른 학자들의 학설을 응용하더라도, 우리말의 체계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실은 과감하게 고쳐 나갔으며, 각 품사에 대한 외술의 하위 분류는 아마다뿐만 아니라 당시의 어떤 학자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우리말의 속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책들을 펼쳐서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한 학자의 업적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나 적대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일반 언어학이나 개별 언어학은 그 초창기에 있어서는 우연하게도 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만한 업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언어 현상의 많은 부분은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그것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독창적일 것을 기대할 수만은 없고, 또한 독창적인 것이 반드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책을 다 이루어서 박아낼 적에는, 그 참고한 책들을 열거하려 하였더니, 이제 다 되고 보니, 그 참고서가 일반(一般) 언어학(言語學), 말소리갈(音聲學), 글자갈(文字學), 내외국(內外國) 말본책(語法書), 문학서(文學書), 말광(辭書)들 그 수가 많아서 너무 번거롭기로 그만두었다.”(‘우리 말본’:7)

이는 외술이 ‘우리 말본’을 완성하는 데에는 언어학의 본분야는 물론이고, 수많은 인접 분야까지 참고하고, 필요한 것을 받아들였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오늘날 같이 학문에 학파가 비교적 정연하게 서 있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학파에 그것도 다행하게 한 사람의 유능한 지도 교수의 지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문법을 썼다면, 참고 문헌을 적어 넣기란 힘든 일이 아니다. 외술의 학문이 우리말 문법의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그 속에 들어 온 것은 모두 녹여서 적절한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꼭 알맞은 자리에 들어 앉혀 놓은 것이다. ‘우리 말본’의 어느 한 쪽을 넘기더라도, 그 속에 앉았거나 같은 시대 학자들의 영향을 아니 받았다고 할 만한 곳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의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가 새롭고 이질적이어서, 그 방대한 지식을 정리하여 새로운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다시 창조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로의 작업이었다. 외솔이 '우리 말본'에서 참고 문헌을 적어 넣지 않았기 때문에, 후세의 사가들이 국어학사를 쓰는 데에 수십 배의 힘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영근:145). 이러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외솔이 번거로움을 줄인 이유도 충분히 양해할 만하다.

외솔이 경도대학에서 공부할 때, 철학과 교육학을 전공했다는 것이 외솔의 학문을 비하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철학과 교육학을 통해서 다져진 폭넓은 지식과 논리적인 통찰력이 없었더라면, 언어학의 학파가(적어도 우리 땅에서는) 확립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 많은 지식을 소화하여,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거대한 문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를 상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외솔의 '우리 말본'을 평가하려면, 우선 그것이 쓰여지고 있었던 때에, 만약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주시경의 가르침이 없었고, 또 외부 학자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그러한 대작이 가능했을까를, 그리고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왜 그것에 비할 수 있는 국어학적인 업적이 더 나올 수 없었던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몇 사람의 학자들의 교육을 받고, 하나의 이론에 의하여 하나의 좁은 주제를 가지고 박사 학위 논문 하나를 엮어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국어의 모든 분야에 걸친, 그러면서도 앞 사람이 이루어 놓지 못했던, 그 방대한 내용을 일관성 있고 완벽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색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가를 어렵짐작이라도 한 다음에, 외솔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외솔의 학문적 업적의 세부를 전부 분해하여 그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당시의 나라 안팎의 연구에 영향을 아니 받은 부분을 찾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자동차가 단순한 부속품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느 한 부속품이라도 그 자동차의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 튼튼하고 기능이 좋은 자동차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만들어져 그것의 최종적인 조립은 설계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외솔의 평가는, 우리말의 전체적인 문법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 전통 문법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우리말의 문법을 완성했다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외솔은 많은 다른 학자들에게서 광범위하게 지식을 얻되, 우리말에 필요 없는 지식은 버리고, 우리말에 맞지 않는 것은 맞도록 고쳤으며, 우리말의 문법에 꼭 필요하면서도 다른 학자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색을 통해서 고안해 내어 보태어서, 그 전체를 피가 통하고, 맥이 흐르는 생명 있는 문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언어의 연구는 문예나 경제, 정치, 도덕과 같은 가치의 학문이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화학, 심리학과 같은 사실의 학문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의 언어학자가 독일 언어학자의 학설을 받아들인건, 독일의 언어학자가 프랑스 언어학자의 학설을 받아

들이건, 그 자체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유태인 가문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나치 시대의 독일인이 버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이다.

외술의 문법이 워낙 개방적이어서 당시의 많은 서양의 문법의 영향을 받았들었고, 또 일본 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들였다 하여, 타고난 나라와 겨레 사랑의 정신과 주시경 스승에게서 받은 사상과 철학에 조금도 흠이 되지는 않는다. 서양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서양의 언어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월등하게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며, 일본 문법의 영향을 수용한 것은 일본말의 문법이 우리말의 그것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각각의 개별 언어의 문법이 서로 아무런 영향 없이 개별적으로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결과는 상당한 부분이 공통적일 것이 예상되며, 그 가운데서도 구조가 같은 언어의 문법은 더욱 닮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언어의 보편성과 인간의 사고 능력의 동질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연 과학의 연구 업적의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문이 분명히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같은 우리말을 연구하되, 우리말을 말할하고, 우리 겨레의 정기를 꺾으며, 우리의 글을 더럽히는 학문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외국의 이론만 숭상하여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높은 업적에는 고의로 눈을 감아 버리고, 나라 안에서 나온 우리말로 쓰여진 논문이나 책은 읽으려 하지 않고, 외국에서 배운 것이면 무조건 숭상하는 태도나, 외국의 것을 몰래 훔쳐다가 내 것인 것처럼 하거나, 나라 안의 것을 훔쳐다가 외국에 가서는 내가 한 것처럼 속이는 것 등도, 결국 사ibi 학자가 하는 일이다. 외술의 업적 속에서는 이러한 점은 전혀 용납될 수 없었다.

개화기에 국어 문법을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서 유길준, 김규식, 김희상, 주시경, 김두봉, 이규방, 안 환, 이필수 등의 우리 학자들의 문법과 高橋亨, 山田孝雄, O. Jespersen, D. Jones, Underwood 등의 외국 학자들의 업적은 특히 외술의 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권재선, 1988). 이들 가운데서 주시경의 문법적 업적은 두드러진 데가 있다. 주시경은 통시적인 분석과 공시적인 분석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주장하는 한편, 언어의 형태는 문법적인 구조에서나 음운론적인 표상에서나 양쪽 다 두 가지 구조의 총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문법적으로는 월의 겹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속뜻'('숨은 뜻': 변형 생성 문법론자들이 심층 구조라고 하는 것과 같다)을 감추고 있으며, 음운론적으로는, 주어진 형태론적 환경 안에서 나타나는 어근의 '일시적인 형태'는 종종 고정된 '본디 형태'와는 다른 것이며, 정서법은 어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음운론적 규칙의 결과를 무시하고 어근의 '본디 형태'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박선자,

1992).

이 원리는 현대 한국어 맞춤법에 시종일관 적용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어근의 다양한 발음 간의 교체, 그들이 불규칙적이지 않는 한, 즉 일반적인 음운 규칙에 의해 예언될 수 있는 한, 적을 때에 무시된다. 맞춤법은 표층적이라기보다는 '심층적'이다. /gabdo/, /gabsʰi/와 같은 형태의 쌍은 '값도', '갑시'가 아니라, '값도', '값이'로 표기된다. 왜냐 하면 기저의 |sʰ|는 발화시에 규칙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고,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맞춤법의 음절 구분은 음성적이라기보다는 형태적이다. 즉 /gabsʰi/에서 /sʰ/는 음성적으로는 다음 음절에 속하지만, 형태론적으로는 어근의 일부이다. 따라서 /값-/처럼 /ʌ/은 한 덩어리로 받침으로 표기되고, /갑ㅅ-/처럼 표기되지 않는다(박선자, 1992).

주시경의 이러한 관점을 외솔은 선별적으로 계승하였다. 음운론적인 면(따라서 맞춤법)은 두 가지 표상을 구분하였지만, 문법적인 면에서 두 가지 표상을 구분하는 것은 계승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선별적인 계승은 당시의 서양 언어들의 정서법과 서양 문법학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양 언어들 특히 영어와 불어의 정서법은 한글 맞춤법에 비하면 떨어지지만, 형태론적인 특성을 상당히 충실히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에 반하여, 그 당시의 서양의 전통 문법이나 구조주의 문법, 일본의 문법들이 속구조와 겉구조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음운론이나 표기법에서는 주시경의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날의 맞춤법이 있게 했으나, 문법에 있어서는 평면적이고 일원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당시의 과학적인 전통 문법이나 1940년대에 우리의 문법에 비로소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기술 언어학은 실증성을 강조한 나머지 주시경에서 주장된 속뜻과 같은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 외솔의 문법에 추상적인 현상을 배제하게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외솔의 문법은 우리의 전통 문법이 앞선 이론들의 장점에 대하여 개방의 길을 터 놓았다는 공로가 인정된다.

### 3. 문법 용어 다듬고 만들기

외솔은 '우리 말본'에서만 해도 음성학과 문법에 대한 순 우리말로 된 학술 용어를 수백여 개나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용어들은 균형성과 체계성이 갖추어져 있다. 스승인 주시경이 만든 용어를 외솔의 선배인 김두봉은 그대로 썼으나, 새로 필요해서 만든 것은 대부분 뜻이 분명한 우리말로 만들고, 알기 어려운 것은 한자를 덧붙였다. 주시경이 만든 학술어는 순 우리말을 외자 또는 두 자로 줄여서 만든 것이어서, 우

리의 낱말 만드는 규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외국어보다 더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이리하여 주시경 선생의 학술 용어 가운데는 상당수가 우리의 언어학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외솔의 것은 기억하기 쉽고, 우리말의 문법 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한자 말만큼 적절한 것이 많음은 물론이거니와, 한자말 용어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절한 것이 상당수 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외솔이 만든 순 우리말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말 학술 용어보다 음절 수가 많아서 불편하다는 불평도 있으나, 한자말보다 다소 더 긴 것이 고유어 자체의 특징이므로, 익숙해지고 보면, 전혀 불편이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다.

“주 스승님의 우리 말본을 풀이하는 데에는 우리말로 그 학술어(갈말)를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전연히 찬성한다. 그리하여 전에 김두봉이 그 ‘조선 말본’을 기초하 실 적에 될 수 있는 대로 주 스승님의 쓰시던 술어(갈말)를 그대로 이어 쓰는 것이 좋 겠다는 말을 부탁한 일까지 있었다. 그랬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고친 것은 무슨 까닭인 가. 이는 다름이 아니다. 한 말로 하면, 우리 말본을 쉽게 하여 용이하게 이해되며, 일 반적으로 보급되도록 하려 함에서 나온 일이다.”(‘조선어의 품사 분류론’:94쪽, 원문에 서 한자를 빼고 말씨를 현대 감각에 맞도록 고침:필자)

외솔은 이와 같은 이유로 주시경의 약어를 버리고, 김두봉을 본받아 뜻이 분명한 우리말로 학술 용어를 만들었다.

“이 책에는, 말본의 갈말(術語)을 모두 순 배달말로 새로 지어 썼다. 이는, 첫째, 배 달말의 본을 풀이함에는 배달말로써 함이 당연하며, 자연스러우며, 따라 적절하며, 이 해되기 쉽다고 생각함이 그 까닭의 하나이요; 둘째는, 다른 나라말에서 쓰는 갈말은, 그 나라말에 맞도록 한 체계에서 일정한 뜻을 가진 것인 때문에, 그것과는 체계가 다른 배달말의 본을 풀이함에는 적당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그냥 여기에 꾸어 쓰기 어려운 것이요; 세째는, 나의 말본 체계가 앞서사람의 그것과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앞서사람의 지어 놓은 갈말이 약간 있지마는, 그것은 수에서 아주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 대로 받아 쓸 수 없었고; 네째는, 새로운 사상의 체계는 새 로운 표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한 말본의 갈말만이라도 순 대한의 말로 하여서 대한 사람의 독특한 과학적 노작의 첫 걸음을 삼고자 함에 있다(나의 논문 ‘조선어 술어론’ 을 열러보라).” (‘우리 말본’의 일러두기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외솔 문법이 술어를 달리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각 나라말의 말갈 (문법)의 풀이는 그 나라말로써 함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적절하고, 이해되기 쉽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우리말에서 쓰는 말갈은 우리말에 맞도록 짜여진 말본 체계에

서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또 앞 사람의 그것과도 다른 것은 앞 사람이 지어 놓은 갈말의 수가 아주 부족하며, 또 그 말본의 체계도 다른 점이 많으며, 새로운 문법 사상을 표현하는 데는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솔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낸 갈말의 다수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또는 조금 고쳐져서 쓰이고 있다. 앞 사람들과 다른 몇 개의 갈말을 주시경의 ‘국어 문법’과 김두봉의 ‘김두봉 조선 말본’과 대조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주시경	임	엇	음	언	억	끗	것
최현배	임자씨	그림씨	움직씨	매김씨	어찌씨	마침법	자리토씨/도움토씨

김두봉	소리내틀	제임	대임	제음	남음
최현배	소리내는 틀	이름씨	대이름씨	제움직씨	남움직씨

이리하여 우리의 문법과 언어학에는 순 우리말 용어가 만들어져서 뿌리를 내리는 전통이 서게 되었다. 허 용, 박지홍, 김계곤, 김승곤, 김석득, 김영송 등에 매우 자연스럽게 알기 쉬운 고유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 4. 전통 문법의 보편적 바탕

외솔이 우리 말본을 시작해서 완성하던 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나 인쇄업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연구를 장려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때도 아니며, 연구를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제 나라말을 연구한다는 것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온갖 억압을 받아야만 하던 때이다. 이러한 때에 완벽에 가까운 방대한 전통 문법의 저서를 낸다는 것은 사람을 넘는 머리와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알려졌던 국내외의 중요한 문법 이론을 거의 섭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의지력은 스승인 주시경에게서 물려받은 겨레와 나라에 대한 사랑의 정열이 원동력이 되었다.

외솔의 우리 말본은, 우리 말과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가장 구조가 닮은 일본의 문법 체계까지 통털어 보아도, 당시에 이만한 논리 정연한 문법서는 드물 정도이다. 외솔의 문법은 큰 줄거리(문법 현상의 상위 분류나 개념)는 당시의 서양 문법이나 일본 문법과 닮은 점이 많으나, 세부적인 면(하위 분류나 개념)은 당시의 세계의 문법 수준을 멀리

뛰어넘은 것이다. 어느 한 쪽을 넘겨 보아도 분류와 그 풀이가 섬세하게 정제되어 있는데, 이는 외술의 사고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날의 형식 문법이나 형식 의미론이 수학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화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언어 현상을 도외시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큰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언어학의 성과는 그것을 위한 사색이 얼마나 넓고 깊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근대적인 국어학이 본격적으로 주시경에서 시작되었으나, 주시경 문법의 원형이 우리의 전통 문법에 얼마 동안 보다 충실히 계승되지 못한 것은 워낙 방대하고 개방적이었으며, 일반 이론 지향적이었던 외술 문법의 영향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문법으로, 한 시대의 가장 인정받는 이론에 의하여 완성의 경지에 다다른 것은, 현대 국어에 있어서는 외술의 '우리 말본', 그리고 중세 국어의 경우는 눈피의 '우리 옛말본'에서 들 수 있을 따름이다. 이 두 책은 다른 나라 말본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완성의 경지란 후세의 학자들에게 비판이나 수정 없이 계승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옛말본'에서만 해도 '우리 말본'의 이론이 품사 분류에서부터 형태론과 통어론의 세부적인 면에까지 상당한 수정이 있었음은 이 두 책을 관심 있게 읽어 본 이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 언어의 문법적인 연구는 문법적인 기능 공간의 적절한 분절이다. 이러한 분절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의 기능 공간의 크기가 다른 언어의 그것과 동일할 수는 없으며, 그 공간을 차지하는 문법적인 형식의 밀도도 어떤 곳은 높아서 같은 기능 공간을 채우는 형태소나 낱말의 수가 많고, 어떤 곳은 밀도가 낮아서 같은 기능 공간을 채우는 형태소나 낱말의 수가 적다. 때로는 문법적인 형태소나 낱말의 수가 겹치지 않고 그 경계가 명확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그 공간에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또는 그 성격이 정도적인 것이어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형태소 분석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두 개의 형태소로 된 [먹다], [머그니], [머거서] 등을 문법적으로 분석할 때, 우리는 [가다], [가니], [가면] 등을 참조하게 된다. 이리하여 이들은 ①/먹-다/, /먹-으-니/, /먹-으-면/; ②/먹-다/, /머그-니/, /머그-면/; ③/먹-다/, /먹-으니/, /먹-으면/과 같이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①은 아무런 실질적인 뜻이 없는 소리인 /으/를 하나의 도움줄기로 보는 법이고, ②는 /머그-/를 씨몸(곧, 씨줄기)의 으뜸꼴로 보는 법인데, 이는 /으/를 씨몸의 한 부분으로 보는 법이며, ③은 /으/를 씨끝이나 도움줄기의 소리를 고루는 한 조각으로 보는 것이다. 외술은 박승빈(1930)이 ②/먹-다/, /머그-니/, /머그-면/의 방법을 택하는 데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③을 택하였다('우리 말본':163).

오늘날 일본어 문법이 어간과 어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 ②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음절이 대개는 CV형의 개음절이고, 또 그들의 가나 문자가 분절음을 적는 글자가 아니라 음절을 적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③의 경우 /으/를 씨끝 또는 도움줄기의 첫소리로 보되, 그것이 홀소리나 /ㄹ/ 뒤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고루기 위하여 /ㄴ/, /ㅁ/ 따위의 앞에서 씨끝 또는 도움줄기의 첫소리로 들어가는 것이냐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외술은 뒤의 경우를 택하였다(‘우리 말본’:163). 오늘날 우리말의 음운학이나 형태론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는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북쪽의 문법 책들에서는 고름 소리 쪽으로 대개는 기울어져 있다.

미시적인 눈으로 보면, 인문 과학이나 사회 과학은 자연 과학만큼 그 방법이나 이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학은 20세기 이후라는 짧은 기간 안에 들어가서 볼 때는, 그 이론의 변화와 학파의 분화하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더욱 가속도가 붙어 있고 언어학은 인문 사회 과학의 발전에 주도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화와 다양성 자체가 언어학의 발전 그 자체는 아니다. 일시적인 호기심을 일으키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실패로 끝나는 시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 문법, 하나의 보기로 외술의 업적을 현대의 변형 생성 문법과 거기에서 직접으로 또는 그에 대한 비판으로 파생된 여러 학파들 가운데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올바른 실체는 파악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러한 눈으로는 전통 문법의 성격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 문법이란 대부분의 논자들은 일정한 시기의 문법으로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 문법이란 어느 한 시기의 문법이 아니다. 적어도 국어 문법의 경우는 그러하다. 전통 문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차차로 시대마다의 어떤 특수한 학파의 문법과 표면적으로는 대결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학파의 장점들을 포용하여 융해시키면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리하여 전통 문법은 어떻게 보면 논리성이 없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랜 동안의 수많은 학자들의 깊은 사색의 결과를 축적하여 보편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40~50년대의 미국의 기술 언어학은, 전통 문법으로는 따르기 어려운, 과학적인 엄격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변형 생성 문법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의 음운 분석 방법과 율을 선형 구조나 계층 구조로 보는 장점 등은 전통 문법 속에 흡수되었다. 다시 GB 이론 이전의 변형 생성 문법도 이미 전통 문법 속에 포용되고 있다(허 용의 ‘우리 옛말본’, ‘16세기 우리 옛말본’ 등은 전통 문법 속에

기술 언어학과 구조주의 언어학, 초기의 변형 생성 문법의 장점들을 고르게 수용하여 아무런 충돌 없이 조화시켜 놓고 있다).

오늘날 격문법, GB-이론, GPSG, HPSG, 기능주의 문법(기능주의 문법은 누구 한 두 사람에게 의해서 창시된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조금씩 다르면서도, 공통성을 띤 여러 업적이 있음) 등이 난립하여 경쟁 또는 상보적인 상태에 있다. 이들이 언제 어떻게 변질되어, 기술 문법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라질지 모르지만, 국어 전통 문법의 특성과 포용력은 반드시 이들의 장점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포용하게 될 것이다.

전통 문법이란 여러 가지 관점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것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직관을 통해서 축적된 정신적인 사색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문법도 서양의 그것에 비하면 역사가 짧지만, 그러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한 포용력은 외술의 '우리 말본'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외술의 '우리 말본'은 현대 우리말의 음운론, 형태론, 통어론, 의미론, 화용론들 가운데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 분야에 걸친 종합된 문법이다. 우리 현대 말에 관하여 모든 분야가 하나의 방법론으로 한 권의 책 속에 이렇게 폭 넓고 깊게 다루어진 것은 이 책이 아직까지는 유일이다.

지금에 와서도 우리 전통 문법은, 외술 문법의 기본적인 틀이 큰 수정 없이 유지되면서, 차차로 여러 문법 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성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는 전통 문법에 수용됨으로써만 비로소 정확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전통 문법 이외의 문법은 우리의 경우 아직 부분적인 문법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적인 문법이 나오려면 아직도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틀을 확정한다는 것은 다른 학문과 달라서 문법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품사의 분류를 예로 하면, 우리말에서 접속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기능 개념 공간을 쪼가르는 데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러나, 그러면, 그래서, 그러므로, 또, 다만, 즉,……' 들을 접속사의 범주에 두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개념 공간이 성기게 되거나 좁아질 것이다. 그러나 접속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을 접속의 기능을 하는 부사로 처리할 수가 있어서 부사의 공간이 넓어지거나 조밀해지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나, 그러면, 그래서, 그러므로,……' 들은 '그렇다'의 활용형으로 접속의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또, 다만, 즉,……' 들을 접속의 기능을 가진 부사로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저것은 책이다."의 형태소 {-이-}는 잡음씨(지정사) 줄기로

처리하면, 그것은 풀이씨 줄기의 하나가 될 것이지만, 서술적 조사로 분류하면 격조사의 하나로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을}, {-기}를 풀이씨로 하여금 이름말이 되게 하는 바꿈토로 보듯이, {-이-}를 이름씨(또는 이름말, 어찌말 등의 다른 말들)를 풀이말이 되게 하는 바꿈토로 처리할 수도 있다. 북쪽의 문법서에서 이러한 처리가 자주 보인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지역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수십 년 동안 학문적인 교류가 없이 각각 독자적인 방법으로 문법을 발전시켰을 때 큰 차이를 가지고 발전될 수도 있다. {-이-}를 서술적 조사로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격조사의 범주에 드는 주격이나 대격 같은 구조격이나 행위격, 피해격, 방향격, 도달격, 도구격 같은 의미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다소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래도록 우리말의 어형 변화(Inflektion)의 범주에서 곡용(Deklination)과 활용(Konjugation)을 구분하려는 주장과 토씨와 씨끝을 구별해 온 주장이 존속해 왔으나, 유럽의 구조주의와 미국의 기술 언어학 등에 대하여 개방적이었던 이 쪽의 문법은 토씨와 씨끝의 구분을 따르는 쪽이 갈수록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은 미국의 변형 생성 문법 이후에 일어난 여러 통사론의 영향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굳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외술의 문법이 고립이나 독자성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여러 문법학을 참고하여 비교적 보편적인 원리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 말본'이 우리말의 토씨를 서양어의 전치사에 대응시키는 것과 '잠음씨(지정사)'를 서양말의 계사에 대응시키는 것도 그러한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법학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비교적 폐쇄적인 북의 문법에서는 풀이씨의 씨끝, 토씨, 잠음씨의 줄기 들을 모두 토라는 하나의 범주에 넣고 있다. 남쪽의 일반적인 경향과 북쪽의 독자적인 발달에서 오는 차이는 어느 쪽이 더 낫을 것인가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라가 하나될 때 어떤 방법으론지 조정이 될 것이다.

이전에 문법이 잘 연구되지 않은 언어를 처음 문법화할 때 참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외술 문법의 훌륭함은 그것의 세부적인 부분은 수정되었지만, 전체적인 틀이 후세의 문법들에 의해 크게 도전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증명된다.

## 5. 우리 말본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외술 학문의 두 봉우리인 '우리 말본'과 '한글갈'(정음학)에

대하여, 각각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 가며, 그 말로써 하여 가며, 그 말로써 남기나니; 이제 조선말은, 줄잡아도 반만 년 동안 역사의 흐름에서, 조선 사람의 창조적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성과의 축적의 끼침이다. 그러므로, 조선말의 말본을 닦아서, 그 이치를 밝히며, 그 법칙을 들어내며, 그 온전한 체계를 세우는 것은 앞서사람의 끼친 업적을 받아 이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계승승할 뒷사람의 영원한 창조 활동의 바른 길을 닦음이 되며, 찬란한 문화 건설의 터전을 마련함이 되는 것이다.”(‘우리 말본’ 머리말에서)

외솔은 한 겨레의 말과 그 말의 연구의 중요성을 위와 같이 말했다.

“내가 무던 자질과 열은 학식을 불고하고, 선각의 최광옥, 유길준, 주시경의 여러 어른의 뒤를 이어, 외람히 조선 말본의 연구 및 정리에 종사하여, 이미, 이 책의 첫째책을 박아낸 지가 벌써 여섯 해 반이나 되었다. 그 동안에, 일변으로는, 앞으로 지어 가며, 일변으로는, 된 것을 해마다 다시 고치고 깊고 하여, 이제, 그 다된 한 보통어의 원고를 옆에 놓고서, 이것이 나의 반생 동안의 “부단노력”의 결정인가 하고, 바라보매, 그지없는 느낌을 막을 수 없도다.”(‘우리 말본’ 머리말에서)

여기에서 앞 사람과 뒤 사람은 모두 우리의 학자들을 가리킨다. 외솔은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의 앞선 연구를 이어 받되, 스스로의 연구가 쌓이고, 그것이 말본의 모든 분야로 넓혀짐에 따라, 반생 동안을 다시 고치고 깊고하여, 원고를 완성했음이 이 글에 나타나 있다. 한 언어의 문법 현상의 부분 부분을 거의 빠짐 없이 정리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다. 말본이란 하나의 완성된 체계라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불완전하여 고치게 되면, 그와 맞물려 있는 다른 부분이 잇달아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앞서사람들의 말본들과는 다름이 매우 크다. 첫째, 그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앞서사람의 풀이법은 분석적이었음에 대하여, 이 책의 풀이법은 종합적이다. 그리하여, 그 전체의 체계에서도, 꽤 많은 다름이 생기었다. 씨가름(품사 분류)에서 월가름(문분류)에 이르기까지, 거의 하나도 옛 설명을 그 대로 습용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새로운 체계를 이루었음은, 이를 보시는 분이 짐작하실 줄로 안다. 그리하여, 그 완전 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이 체계로 말미암아, 비로소, 조선말의 말광(辭典)을 조직적으로 꾸밀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체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외국 사람이라도 능히 조선말의 조직과 운용의 이치를 깨치어서, 조선말과 조선글을 법에 맞도록 쓰게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우리 말본’ 머리말에서)

‘우리 말본’이 완성된 데에 대한 감회와 앞으로 이 연구가 후대에 미칠 커다란 영향

력에 대한 자신감을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완전 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한 것은 ‘문법의 완전성’이란 영원히 있을 수 없고, 뒤를 잇는 사람들의 연구와 보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따온 말에서 “이 책은 앞서사람들의 말본들과는 다름이 매우 크다. 첫째, 그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앞서사람의 풀이법은 분석적이었음에 대하여, 이 책의 풀이법은 종합적이다.”고 한 것은 풀이씨의 씨끝들을 다른 책들(예를 들면, 주시경의 ‘국어 문법’과, 그것을 충실히 이어 받았으나, 좀더 논리적으로 다듬은 ‘조선 말본’과 ‘김더 조선 말본’)은 풀이씨의 도움줄기들과 씨끝들과 입자씨 뒤에 나타나는 토씨들을 모두 별개의 품사로 본 데에 대하여, 외솔은 이들을 딴 씨로 보지 않고, 묶어서 하나의 낱말로 본 데에 있다(허웅, 1991).

종합적인 관점은 이미 김두봉에서 싹트고 있다.

“일찍 주 스승님께서는 「다」와 함께 토(끝토)로 보던 「시, 앓, 쟁」들을 김 두봉님은 토에서 떼어서 움직씨에다가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제 나의 눈으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김님의 풀이는 도저한 분석적 풀이에서 얼마큼 종합적 풀이애로 한 걸음을 옮긴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가 「다」까지를 움직씨에다가 붙여서 함께 한 씨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아직 때가 온전한 종합으로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할 만하다.”(‘조선어의 품사 분류론’:71~72)

종합적인 관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광(사전) 편찬에 미친 외솔의 영향은 지극히 크다. 문법이 해야 할 일과 사전이 해야 할 일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1947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조선말 큰사전’과 1960년에 한글학회에서 만든 ‘새 한글 사전’은 도움줄기(안맺음씨끝), 토씨, 풀이씨의 씨끝 들을 올림말(표제어)로 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 말본’의 체계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 후에 나온 많은 우리말 사전들도 한글 학회의 ‘새 한글 사전’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에 나온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도, 그 예문과 뜻풀이는 크게 고쳤으나, 그 문법적인 풀이는 ‘우리 말본’을 많이 참고했다.

문법이 사전의 편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잠음씨 줄기 {이-}를 예로 하여 고찰해 보자. 북쪽의 문법에서는 {-음}과 {-기}를 풀이말을 입자말로 바꾸는 바꿈토로 보듯이, {이다}의 {이-}를 다른 말을 풀이말로 바꾸는 바꿈토로 보아 이 두 가지 다를 종합적으로 보는 데에 대하여, 외솔은 앞의 것은 씨끝으로 보아 종합적인 태도를 취하고, 뒤의 것은 하나의 독립된 품사인 잠음씨의 줄기로 보았다. 이리하여 북쪽의 사전에서는 {-음}과 {-기}와 {-이}가 모두 ‘토’로 처리될 것이며, 남쪽의 사전에서는 {-음}과 {-기}는 ‘씨끝’으로, {이-}는 ‘잠음씨’로 처리된다.

“나는 십여년 전의 사초(草稿)에서는 여기의 이른 ‘잡음씨’를 토씨 가운데에 넣어서 이름씨를 풀이말 되게 하는 ‘풀이자리토씨’(설명격조사)라 하였었다. 그러나 금번에는 우에서 전개한 바와 같은 이론에서 이것이 풀이씨에 붙을 것으로 보고서, 다른 풀이씨(움직씨, 어떻씨)와 나란히 한 풀이씨로 세워 잡음씨(지정사)라 하였노라.”(‘조선어의 품사 분류론’:93)

“나도 십여년 전에 품사 분류의 연구를 시작할 적에 일종의 모방 심리에서 입자씨(체언)에 붙는 모든 토씨를 다 우의 입자씨에다가 붙여서 설명하려고 애써 본 일이 있었으나, 그것이 본시 우리말 자체의 성질에서 나온 시험이 아니매, 필경 그 불가함을 깨치고 말았다. 근자에 와서 조선어 연구자 가운데서 이러한 주장—토씨를 도무지 없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본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찬동할 수가 없다고 본다.”(‘조선어의 품사 분류론’:98)

외솔이 1920년대에 와서 토씨와 잡음씨에 대하여 종합적인 태도를 버리고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이다. 종합적인 풀이의 경향은 풀이씨에뿐 아니라, 입자씨에도 미쳐, 입자씨와 토씨(그리고 드물게는 입자씨와 잡음씨 줄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으려는 일이 북쪽에서는 우세하나, 이쪽 국어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은 역시 입자씨의 ‘꼭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우리 말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었었으니, ‘말소리갈’과 ‘씨갈’과 ‘월갈’이다. 이제 차례대로 이 세 부분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

### ① 말소리갈(음성학)

우리말 소리의 과학적인 연구는 15세기 중기에 매우 발달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훈민정음(글자)과 그 이론을 체계 세운 ‘훈민정음’(해례)이다. 그러나 이 높은 수준의 언어학적 업적은 그 뒤 이어 받아서 더 발전시킨 업적이 없다가, 19세기 끝 시기에 주시경의 ‘국어 문전 음학’(1908년 펴냄)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과학적인 연구가 싹트고, 김두봉의 ‘김두 조선 말본’을 거쳐 최현배 ‘우리 말본’의 말소리갈에서 비로소 현대적인 음성학의 바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허웅, 1991).

말소리갈은 당시의 우리말 소리의 연구가 그랬듯이, 음운학과 음성학이 분리되지 않았으나, 음운이라는 개념만 도입하면 바로 훌륭한 음운론이 될 만큼 낱소리(음성과 음운의 구분이 없는 소리로 오늘날의 분절음과 같음)가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낱소리의 변동에 대해서도 앞선 연구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규칙화되었다.

말소리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소리 내는 틀의 생김과 일함’인데, 여기에서는 발음 기관을, ‘숨 쉬는

데'(호흡부), '소리 내는 데'(발음부), '소리 고루는 데'(조음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서, 그 각 부분의 생김과 일함(작용)을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음성 기관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인데, 이것을 국어 음성학에도 도입하고, 그 일함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둘째 가름은 '낱소리'의 설명이다. 낱소리란 현대 음운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절음(seg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소'가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다. 구조주의 시대의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솔의 소리같은 음소와 음성의 구분이 없어, 방법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솔이 우리말 낱소리를 홀닿소리를 15개, 홑닿소리를 9개로 잡을 때, 그 낱소리는 우리말 토박이들의 다수의 직관의 반영인 심리적인 음소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 그 낱소리들이 각각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낱소리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당시에 알려진 조음 음성학과 음향 음성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낱소리는 음성(또는 변이음)의 기술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리의 변동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구조주의 언어학 시대의 고전적인 음소 층위의 존재를 부인하는 현대의 여러 음운학의 분위기에서 볼 때는 외솔의 소리잡을 오히려 저항감 없이 수용할 수 있고, 현대 음운 이론의 발달을 위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외솔은 우리말의 낱소리를 '홀소리:닿소리', '입소리:코소리', '맑은소리:흐린소리', '홀소리:겹소리', '숨뚨소리(유기음):숨안뚨소리(무기음)' 등의 여러 각도로 소리를 가름하였다. 이러한 가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가름은 홀소리와 닿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홀소리는 홑닿소리와 겹닿소리로 나뉜다. 홑닿소리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아홉으로 잡고 ㅛ는 겹닿소리로 보았다. ㅛ와 ㅛ는 그 뒤 오늘날까지 겹닿소리로 볼 것이나, 홑닿소리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학교 교육에서는 외솔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홑닿소리는 소리 고루는 자리(혓바닥의 최고점의 앞뒤 자리)에 따라, 앞 홀소리(ㅏ, ㅑ, ㅓ, ㅕ), 가운데 홀소리(ㅗ, ㅛ), 뒤 홀소리(ㅜ, ㅠ, ㅡ)로 나누고, 입 열기(혓바닥의 최고점의 높고 낮은 정도, 따라서 턱모의 크기)에 따라 닫은소리(ㅏ, ㅑ, ㅕ), 반닫은소리(ㅓ, ㅕ, ㅗ), 반연소리(ㅛ, ㅛ), 연소리(ㅜ)로 나누었다. 그리고 입술의 끝에 따라 넓은 홀소리(ㅏ, ㅑ, ㅓ, ㅕ, ㅗ, ㅛ), 둥근 홀소리(ㅜ, ㅠ, ㅡ)로 나누었다. 소리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고, 그 아홉 소리를 분류하는 방법은 일반 음성학을 좇고 있는데, 다만 D. Jones(1917)의 홀소리 네모꼴이 우리말의 홀소리의 설명에

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Vietor의 홀소리 세모꼴을 써서 홀홀소리의 최고점의 자리를 지적하고 있다(58쪽). 우리말에 대한 이 홀소리 세모꼴은 오늘에 와서도 학교 교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실증적인 학풍을 이어 온 북녘 음운 학자들에 의하여 널리 애호되고 있다.

겹홀소리 체계는 1겹홀소리, 2겹홀소리, 3겹홀소리, 4겹홀소리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63쪽). 2겹홀소리는 3겹홀소리보다 발음이 시작될 때, 입술의 모양이 더 크고, 입도 약간 더 크게 열린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근소하며, 상보적인 분포에 의한 차이이므로, 오늘날의 학자들은 2겹과 3겹을 나누지 않고, w로 시작되는 상승 이중 모음으로 처리한다.

닿소리의 설명에 음운학적 각도와 음성학적 각도가 뒤섞여 있다. 이를테면 홀닿소리의 썸을 열다섯, 곧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ㆁ, ㆁ, ㆁ이라 하였는데(66쪽), 이것은 음운학적 각도로 본 것이다. 그러나 'ㄱ, ㄷ, ㅂ, ㅅ'의 예사소리와 흐린소리(울림소리)를 나누어 놓은 것은 음성학적 처리 방법이다(42쪽). 그리고 거센소리를 겹닿소리로 본 것은 음운학적 처리라기보다 음성학적인 것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닿소리는 크게 홀과 겹으로 나누고, 홀닿소리는 다시 그 내는 방법과 자리와 '소리문(성문)을 좁히는 분수'에 따라 나누고 있다(71~74쪽). 이것은 일반 음성학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주장은 터짐 된소리(ㅃ, ㅆ, ㅈ, ㅊ)를 흐린소리(울림소리)로 본 점인데, 터짐 된소리는 그 울림이 터짐과 함께 시작된다는 데에 그 중요한 논거를 두고 있다(74~86쪽). 터짐 된소리를 흐린소리로 보는 것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분류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우리말의 된소리는 울림이 터짐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은 정확한 관찰이다. 이리하여 '우리 말본'에서 터짐소리의 흐린소리는 예사 흐린소리('ㄱ, ㄷ, ㅂ, ㅅ'의 흐린소리)와 된 흐린소리(ㅃ, ㅆ, ㅈ, ㅊ)로 나뉘지게 된다.

겹닿소리는 '썸긴 겹닿소리'와 '덧겹닿소리'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썸긴 겹닿소리'는 거센소리를 말함ियो, '덧겹닿소리'는 'ㅃ, ㄹ, ㅆ, ㄹ, ㅆ, ㅆ, ㄹ, ㅆ, ㄹ' 따위 소리를 말함이다(92~93쪽). 그러나 덧겹닿소리는 특별한 닿소리의 종류라 할 수 없고, 썸인겹도 꼭 두 소리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가름을 내세운 것은 주시경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시경은 거센소리를 '썸임소리', 'ㄹ, ㅃ' 따위는 '덧소리'라 하였다('국어문법':10~11).

넷째 가름은 '이음소리'인데, 낱소리의 '이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곧 동안(길이), 힘(세기), 가락(높이), 낱내(음절), 달라짐(소리의 변동)의 다섯 가지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달라짐에 대한 설명은 매우 상세하게 다듬어졌고, 그 자료도 넉넉하

다. 변동에 대한 설명은 주시경의 ‘말의 소리’에서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외솔은 이것을 이어받아 더욱 더 보태고 다듬어 놓았다.

## ② 씨갈

씨는 말의 씨라는 뜻으로 곧 낱말을 가리키는 말이다. ‘훈민정음’에 씨라는 말이 보이지만, 그 명확한 뜻을 잡기는 어렵다. 씨를 말본의 갈말(술어)로 쓰기 시작한 것은 주시경이다(138쪽). ‘우리 말본’에서 씨는 품사를 가리키며, 따라서 씨갈은 품사론이라 할 수 있겠다.

“말의 연구의 기초는 낱말에 있는 것인즉, 여러 갈래의 낱말 곧 씨를 연구하는 씨갈은 곧 말본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조각이니라.”(138쪽).

‘우리 말본’의 본 내용인 33~862쪽 가운데서 씨갈은 138~710쪽으로 563쪽이며, 월갈은 711~862쪽으로 152쪽이니, 결국 소리갈 부분을 뺀 전체 말본 가운데서 씨갈은 거의 6분의 5에 가깝다. 씨갈은 그 내용으로 보아, ‘씨의 가름, 각 씨들의 뜻, 보람(특징), 갈래(하위 분류), 끝바꿈(활용) 등의 품사론 및 굴곡론을 포함할 뿐 아니라, 씨를 이루는 문법 형태소들의 구실(기능)(이는 통어론의 분야에 넣을 수도 있다.)과 씨가지, 겹씨, 씨의 바꿈(이들은 낱말 만드는 법에 속한다)’을 포함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형태론뿐만 아니라 통사론의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우리의 전통 문법의 전통이 씨갈 중심이 된 것은 ‘우리 말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유형론적으로 우리말이 교차어이므로 말본의 중심이 씨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끝바꿈〉: ‘우리 말본’의 가장 큰 업적은 풀이씨의 끝바꿈이다. 끝바꿈의 체계는 씨갈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마침법, 이음법, 감목법’의 세 가지 활용법과 그 하위 갈래 및 이들의 기능 풀이, ‘도움줄기’와 그 갈래 및 그 기능 풀이, 그리고 씨끝끼리, 도움줄기끼리, 도움줄기와 씨끝의 어울음 등은 매우 정밀하고, 완벽에 가까워서, 지금에 와서도 이 연구의 수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도움줄기 가운데서 하임, 입음, 힘춤 등이 파생의 뒷가지로 수정되고, 마침법, 이음법, 감목법의 씨끝들 중에서 몇 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래가 옮겨진 것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영문법이나 일문법을 따라 도움줄기를 선어말 어미, 씨끝을 어말 어미 등으로 오늘날 이름을 바꾸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은 외솔 문법에서 탈피해 보겠다는 희망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갈말의 바꿈은 도움줄기와 도움풀이씨의 의미상의 유사성을 놓칠 뿐, 문법학의 근본적인 발달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날의 문법은 촛스키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변형 생성 문법을 비롯한 여러 학파의 영향으로 통사론과 형태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솔이 이루어 놓은 도움줄기와 씨끝들의 일부분의 의미와 기능을 재확인하거나, 좀더 엄격하고 확실한 해석을 붙이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통사론이 대명사, 조용사, 공범주 따위의 검증과 이들의 지시 관계, 그리고 의미론과 논리학의 발달에 따른 양화사와 부정사의 지시 범위 등에 집중된 나머지, 우리말의 문법적인 기능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이들 도움줄기와 씨끝에 대한 연구업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도움움직씨〉: ‘우리 말본’의 씨갈 가운데서 ‘도움풀이씨’의 체계와 그 기능의 풀이는 도움줄기의 그것과 더불어 매우 돋보인다. 풀이씨의 어떤 끝바꿈(특히 어찌풀)에 다른 풀이씨가 뒤따를 경우, 이들이 합성어인지, 단순히 두 개의 독립된 풀이씨의 연결인지, 또는 으뜸풀이씨와 도움풀이씨의 연결인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의 학자들이 몇 개를 도움풀이씨에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도움풀이씨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의 출발점은 역시 외솔 문법이다.

이 밖에도 안운근 이름씨(불완전 명사)에 대한 체계와 분류도 변형 생성 문법의 보문소 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크게 참고가 되고 있다.

〈날말 만들기〉: “‘우리 말본’은 크게 셋으로 되어 있다. 곧 첫째 매 말소리갈, 둘째 매 씨갈, 셋째 매 월갈로 나누어져 있다. 그 가운데서 날말 만들기에 관련된 것은 둘째 매 씨갈 가운데서 첫째 가름의 ‘날말에 대한 뜻매김’ 부분과 열두째 가름 ‘씨가지’, 열셋째 가름 ‘겹씨’, 열넷째 가름 ‘씨의 바꿈’ 등이다. 그것을 조어법 연구의 두 분야(파생법과 합성법)와 대조해 볼 때, 대체로 열두째 가름 씨가지와 열넷째 가름 씨의 바꿈의 일부가 파생법에 해당되고, 열셋째 가름 겹씨는 합성법에 해당된다.”(김계근, 1991:112). ‘씨갈’의 끝 부분에 ‘씨가지’(657~686쪽), ‘겹씨’(686~719쪽), ‘씨의 바꿈’(719~732쪽)으로 날말 만들기(조어론)가 풀이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풍부하고, 체계도 잘 짜여 있어, 뒤 사람들의 이 방면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풀이씨의 여러 가지의 도움줄기(시, 앓, 겹, 더…)와 (검목법의 씨끝을 제외한)여러 가지의 씨끝을 ‘뜻을 더하는 씨가지’로도 보는가 하면(652쪽), ‘잇몸’에서 사이시, ‘좁쌀’에서 사이니을 속가지로 보는 것(640, 695쪽), 또 의미 변화의 정도를 가지고 ‘늑은 겹씨’를 규정하려는 것(669~670쪽), 토씨의 겹침(보기:까지가, 만의, 으로도, 예게로)을 벌린 겹씨로 보는 것 등, 다소 무리가 있는 곳이 없지 않지만, 외솔의 ‘날말 만들기’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자료가 풍부하고, 현대의 발달된 조어론과 큰 차이가 없다.

③ 월갈

월갈은 ‘우리 말본’ 711~841쪽으로, 씨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지만, 130여쪽은 적은 분량이 아니다. 이 책 안에서 월갈이 상대적으로 씨갈에 비하여 분량이 적은 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사론에서 다루어야 할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낱말이나 형태소들이 이미 씨갈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통 문법의 성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술은 월의 밑감(거리, 소재)을 그 짜임에 따라서, 낱말(단어), 이은말(연어, phrase), 마디(절, 구, clause)의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은말은 오늘날의 문법으로 보면 구(Phrase)에 넣을 수 있는 것(곧 나무 그림에서 XP(곧, NP, VP, ...등)의 아래에 놓이는 것)과 절(곧 나무 그림에서 S-마디 아래에 놓이는 것)이 섞여 있어서, 다소 혼란스럽게 보이는데, 이것은 외술 문법이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중요시한 결과 주시경의 속뜻(숨은뜻: 변형 문법에서 심층 구조)의 개념을 이어받지 못한 데서 온 결점이라 생각된다.

같은 이름을 가진 씨와 마디와 이은말은 월 속에서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균형을 이룬다. (다만 맞섬마디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임자씨	임자 이은말	임자마디
매김씨	매김 이은말	매김마디
어찌씨	어찌 이은말	어찌마디
풀이씨	풀이 이은말	풀이마디
( )	( )	맞섬마디

여기에서 맞섬 마디라는 것은 말본갈의 동아리(문법 범주)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오늘날의 ‘X-바 통사론’에서 어휘 범주(N, V, A, P), 중간 범주(N', V', A', P'), 구 범주(N", V", A", P")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X-바 통사론’은 다음의 예문

- 철수는 [비행기의 출발을]<sub>N'</sub> 기다렸다.
- 철수는 [비행기가 떠나기를]<sub>S'</sub> 기다렸다.
- 철수는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sub>S</sub> 기다렸다.

에서 [ ] 안에 있는 목적어들에 대하여 첫 예문은 NP, 다른 둘은 S'라 할 것이며,

‘비행기가 떠나기를’과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에서 ‘-기’와 ‘것’을 보문소(Comp)로 보려고 할 것이다. ‘-기’와 ‘것’을 N(명사 범주)로 보지 않는 한 ‘비행기가 떠나기를’과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을 N'(=NP)로 처리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X-바 통사론’의 이러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차라리 외술과 같은 방법으로 [비행기의 출발을], [비행기가 떠나기를],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들을 각각 ‘임자 이은말(체언 연어)’ 또는 나머지 들은 ‘임자마다(체언 절)’ 같은 것으로 보아, ‘임자○○’, ‘임자□□’처럼, 같은 이름의 범주로 처리하기를 더 바랄 것이다.

〈월 성분〉: 월을 만드는 조각(성분)을, 그 쓰임과 중요성으로 보아, ‘으뜸조각, 딸림조각, 꾸밈조각’으로 나누고, 으뜸조각을 다시 ‘임자말, 풀이말, 부림말, 기움말’의 넷으로 잘게 나누었고, 꾸밈말은 ‘매김말’과 ‘어찌말’의 둘로 나누었다. 그리고 ‘홀로조각’에는 ‘홀로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일곱 개의 월 만드는 조각은 풀이말을 만드는 자리토씨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리토씨의 갈래와 일치한다(613~635쪽, 747~785쪽). 곧,

임자자리토 — 임자말  
 매김자리토 — 매김말  
 어찌자리토 — 어찌말  
 부림자리토 — 부림말  
 기움자리토 — 기움말  
 부름자리토 — 홀로말  
 (        ) — 풀이말

“이러한 월 성분의 갈래는 주시경의 풀이보다 정밀하며, 그 뒤됨이에 대한 풀이도 매우 치밀하다. 주시경은 월의 짜임새를 ‘임이듬-씀이듬-남이듬’으로 쪼개고, 이것을 꾸미는(한정하는) 성분을 각각 ‘임이금, 씬이금, 남이금’이라 부르고 있는데(‘국어 문법’:36~38), 임이듬은 임자말에, 씬이듬은 부림말에, 남이듬은 풀이말에 해당되며, 임이금·씀이금은 매김말에, 남이금은 어찌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말본’에서는 기움말과 홀로말을 더 추가한 셈이 된다.”(허 응,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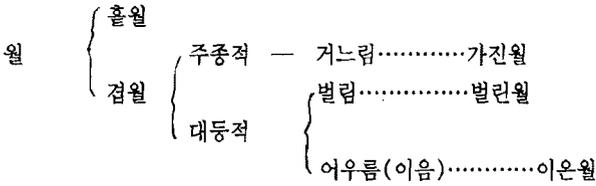
〈월 성분의 자리와 서로 맞음〉:이러한 월 성분의 놓이는 자리는 일정해 있으나, 때로는 그 자리를 바꾸는 이도 있고(785~800쪽), 또 이러한 월 성분 사이에는 높임과 꾸밈에 관해 서로 맞는 말이 쓰여야 말본에 맞는 말이 된다(801~816쪽). 이러한 사

실은 통어론의 중요한 문제로서 앞으로 더욱 더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월의 갈래〉: 외술은 두 가지 각도에서 월을 분류하였다. 먼저 짜임에 따라, 다음에는 바탈(성질)에 따라 나누었다.

‘우리 말본’은 바탈에 따라서 월을 베풀월(서술문), 시킴월(명령문), 물음월(의문문), 꺾임월(청유문)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827~841쪽). 바탈(성질)은 의향법(허웅, 1975:486~520)과 같다. 이 네 가지 월 이외에 느낌월(감탄문)을 더 넣는 사람도 있으나, 지금의 통사론에서 월을 나누는 법과 같으므로 풀이와 예문을 생략한다.

짜임에 따라 월을 홑월과 겹월로 나누고, 겹월은 다시 가진월(포유문), 이은월(연합문), 벌린월(병렬문)로 나누었다.



홑월은 임자말과 풀이말의 걸림이 단 한 번만 성립하는 월들이고(793쪽), 겹월은 임자말과 풀이말의 걸림의 되기가 두 번이나 두 번 더 되는 월이다(799쪽). 이러한 분류는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홑월의 뜻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풀이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곧 임자말이나 풀이말이 여럿이라도, 그 관계가 한 번만인 다음과 같은 말들은 모두 홑월이 된다(793~799쪽).

- (1) 달이 밝다.
- (2) 아이가 글을 읽는다.
- (3)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간다.
- (4) 기러기가 울며 간다.
- (5) 그 애가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
- (6) 우리 언니와 나는 한글을 읽고 쓴다.
- (7) 그 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는 뜨끈뜨끈한 국밥을 많이 먹고, 긴 가래를 오른 손에 가지고, 뒷들 여덟 마지기 논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지금의 통어론에서는 (3)과 (4)를 홑월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 우세할 것이며, (5)~(7)을 홑월로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시경은 월을 걸로 나타나는 구조로만

보지 않고, 그 속뜻(오늘날의 '속구조')을 헤아려서 보기 때문에, 예문 (1)~(7)에 대하여 대체로 지금의 학자들과 거의 같은 견해가 되겠지만, 외솔은 보다 실증적인 방법론을 존중했기 때문에, 입자말-풀이말의 걸림(관계)을 걸으로 나타나는 것만 본 결과, 예문 (1)~(7)과 같은 것이 모두 흘월로 처리되어 흘월의 구조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가진월(포유문)은 마디가 씨와 마찬가지로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월의 한 조각을 이룬 것을 그 속에 가진 월이며, 이 때에, 그 씨처럼 쓰인 마디를 딸림마디(종속절)라 하며, 그 딸림마디를 가진 마디를 으뜸마디(주절)라 한다. 그런데, 이 때 딸림월의 풀이말은 검목법(자격법)의 꼴들과 마침법(종지법)의 꼴들로 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그 검목법의 어찌꼴을 가진 것을 어찌마디(부사절)라 하며, 매김꼴을 가진 것을 매김마디(관형절)라 하며, 이름꼴을 가진 것을 이름마디(명사절)라 한다. 그리고, 마침법으로 된 것을 풀이마디(용언절)라 한다(804쪽).

별린월(병렬문)은 뜻으로는 각각 독립하여 같은 값어치를 가진, 둘 이상의 마디(맞선마디)를 다만 편의상 형식적으로 별리어서 한 덩어리로 만든 월이다. 곧 그 위 마디의 풀이말이 이음법의 별림꼴(얼안 별림꼴)을 가지고 아래 마디에 잇기어서 한 덩이가 된 것이다(808쪽).

이은월(연합문)은 원래 뜻으로 보아 같은 값어치를 가진 두 마디 형식으로 있기어 한 덩이가 되어서 더 큰 한 덩이의 생각을 나타낸 월이다. 그런데, 이은월의 앞 마디의 풀이말은 이음법으로 되되, 별림꼴 밖의 다른 꼴들로 된다(810쪽).

이 세 가지 월의 보기를 들겠다.(805~812쪽)

(1) 가진월

- 모래벌이, 눈이 부시게, 희다.(어찌마디를 가진 월)
- 향기가 좋은 꽃이 만발하였다.(매김마디를 가진 월)
- 달이 밝기가 낮과 같다.(이름마디를 가진 월)
- 부지런한 학생이 성적이 좋으니라.(풀이마디를 가진 월)

(2) 별린월

-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 산은 수정 같고, 물은 겨울 같다.

(3) 이은월

- 언니는 부지런하지마는, 아우는 게으르다.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 애가 내 동생인데, 나이가 열두 살이다.  
 해가 지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비가 올수록, 보리가 잘 자라오.  
 밤이 새도록, 나는 공부를 했다.  
 비가 오다가, 눈이 온다.

“부지런한 학생이 성적이 좋으니라.”에서 ‘성적이 좋으니라.’를 ‘풀이마디’로 볼 것인 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월들에 대해서도 통사론이 많이 연구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견해를 달리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위와 같은 견해는 대체로 수긍할 만하다.

‘우리 말본’의 월갈(통사론)은 월의 종류를 가를 때에, 표면적인 낱말의 연결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 말본’의 갈래에서 볼 수 있듯이, 홀월만 해도 각 월 성분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그 성분들이 연결되는 방법도 복잡하다. 접월은 그것을 이루는 성분이 되는 마디가 홀월의 복잡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어진 앞뒤 마디의 여러 성분 사이에 맺어지는 문법적인 제약 관계가 홀월에서 볼 수 없던 여러 가지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우리 말본’에서는 월 성분 사이의 높임의 일치라든지, 어찌말과 풀이말의 서로 응하는 관계 따위를 체계 세워 풀이하였다. 그러나 전통 문법 속에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더 합리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된다.

“어지러운 이 세태와 흐르는 세월은 나 홀로의 이 이상의 천천한 조탁(彫琢)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우선, 이것으로써, 나의 연구의 한 단락을 지어서, 이를 박아 내기로 한 것이니; 그 바로잡기와 깊히기와 넓히기는 현재 및 장래의 대가(大家)의 힘을 기다리는 바이다.”(‘우리 말본’ 머리말에서)

외술은 이후에 많은 말본의 대가들이 나와서, 잘못된 곳을 고치고, 더욱 깊고 넓혀서, ‘우리 말본’에서 못다한 우리말의 문법을 보완해 줄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와 같이 적어 놓았다.

## 6. 한글갈

‘한글갈(정음학)’은 ‘우리 말본’과 더불어 외술의 우리말과 우리 글 연구의 쌍기둥이며, 겨레 사랑의 정성이 넘기는 곳마다 깃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 책은, 중일 전쟁이 점점 격렬해 갈 무렵에, 내가 폭탄이 서울에 떨어지기 전에,

이 몸이 전화로 죽기 전에, 그 날 그 때까지의 우리 한글 동지들의 연구한 결과를 적어서 뒷세상에 전하여야 하겠다는, 나의 문화 육성의 정성과 겨레 사랑의 의무심에서, 삼년 동안에 밤낮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뤄낸 것이었다.”(‘한글갈’ 머리말에서)

어두웠던 당시의 심회를 1960년에 완성한 고침판의 머리말 이렇게 풀어 놓았다.

“한글은 조선 사람의 지적 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인 동시에, 또 지적 탐구의 가장 긴밀한 대상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한글 연구에 뜻한 지 이제 꼭 실현 두해이다. 이것 저것에 관한 단편적 소견이 일찍부터 없지 아니하였으나, 기왕에는 ‘우리 말본’의 지음과 가르치기의 비뻔으로 말미암아, 손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더니, 이 즈음 수년 동안에 한가한 몸이 되매, 온 시간을 오로지 ‘훈민정음’의 연구에 바침을 얻어, 부지런히 갈고 닦은 성과를 뭉뚱그려, 이에 세상에 내어 놓게 된 것이다.”(‘한글갈’ 초판의 머리말에서)

외솔은 이른바 홍업구락부 사건으로 한여름 석 달 동안 일본 경찰의 악독한 고문을 당하고, 1938년 9월 연희전문학교를 사직 당한 후에 한글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연구 정리하기 시작하여, 1940년 가을에 원고를 완성했으며, 초판의 간행을 끝낸 지 두어 달 만인 1942년 시월 초하룻날 새벽에 다시 왜정의 경찰에 검거되어, 홍원으로 끌려가서, 다른 한글 동지들과 더불어 감옥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1945년의 8·15 해방으로 풀려 나게 되었다.

“이 책은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 망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여, 그 숨은 것을 들어내며, 그 어두운 것을 밝히며, 그 어지러운 것을 간추리어, 써 정연한 체계의 한글갈(정음학)을 세워 위로는 신 경준, 유 희의 유업을 있고, 아래론 주 시경 스승의 가르침의 유지를 이루고자 하였다.”(‘한글갈’ 초판의 머리말에서)

이것이 ‘한글갈’을 짓게 된 동기이다. 우리말을 적는 글자와 이 글자에 관련된 우리 말의 음운을 연구한 업적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세운 것은 외솔의 ‘한글갈’이 처음이다.

“이 책은 오로지 한글(正音文字)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 배달말에 관한 문제는 일체 다루지 아니하고, 그것은 나의 이 뒤의 지음으로 미루었다.”(‘한글갈’ 일러두기에서)

한 겨레 언어의 음운의 공시 및 통시적인 연구는 그것의 표기 체계를 떠나서도 개별 언어학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글자와 관련된 그 겨레의 특수한 문화적인 유산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 분야로 세우는 것은 가능하며, 값 있는 일이다. 중국의 경우 음운학과는 달리 문자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으며, 여기에 중국 고유의 문

학, 철학, 고고학, 종교, 예술, 그리고 성운학이 결합하여 중국 특유의 학문이 성립되었다.

글자 자체의 창제와 그것을 이용한 표기 체계의 변천 자체도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며, 한글은 음성 또는 음소 글이면서도 음절 글자로 출발하여, 음운 변천과 더불어 차차로 형태소나 낱말을 적는 글자로 발달했기 때문에, 국제 음성 부호로 음운을 기술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한글에 관련시켜 가지고 음운론을 할 때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한글의 발달사, 한글의 체계나 발전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사 등 이러한 현상들을 아울러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어 음운론, 국어 형태론 등의 다른 학문과 겹치는 면이 물론 있겠지만, 한글갈(정음학, 한글학)이라는 한 가닥의 학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학문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후학들에게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이 이 책이다.

한글갈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매 역사편

둘째 매 이론편

역사편은 ①훈민 정음의 창제, ②한글 쓰기의 변집(=한글 발전 역사), ③한글 갈기의 피어남(=한글 연구의 역사)으로 이루어졌다.

### ① 훈민정음의 창제

“이 책의 지음이 끝나기 전에, 진정한 ‘訓民正音’의 원본이 발견되어, 그 본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실고, 또 그 설명을 이 책에 풀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이 책에 큰 광채를 더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오백년 뒤의 분에 넘치는 글복이요, 기쁜 일이라, 특히 적어서 이 기쁨을 기념한다.”(‘한글갈’ 6 일러두기에서)

외술은 훈민 정음 창제의 부분 첫머리에 ‘훈민정음’ 원본(전형필 본)과 ‘훈민정음’ 언해본(박승빈 본)을 실고, 여러 가지로 고증한 끝에, 전형필님이 간수한 본이 진정한 진정한 ‘訓民正音’의 원본이요, 박승빈님 본은 원본에다가 치두, 정치의 구별에 관한 한 대문을 달아서, 그 전문을 뒤친 ‘訓民正音’ 언해본의 원간(혹은 그것에 가까운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로써 후학들의 훈민정음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어서 우리 글의 이름이 처음에 訓民正音(百百姓性 마르치시는 正音 소리)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되었으나, 창제 당시부터 언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의 절운법(반절법)에서 유래하는 반절이라는 이름이 훈문

사회에 우리 글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시경에서 비롯된 듯한 한글(한은 '큰(보급), 바른(정리), 하나(통일)'을 뜻함)이라는 이름도 쓰이고 있음을 말하고, 이들 가운데서 '한글'이란 이름이 가장 널리 퍼지고, 깊이 뿌리를 박아, 일반 사회에 즐겨 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에 와서는 우리 글의 이름으로 '언문'이나, '반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훈민정음'이라는 이름도 책 이름이나 우리 글자의 옛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글의 이름은 오직 '한글'일 따름이다.

우리말의 음운 변천과 더불어 한글은 창제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법이 바뀌어 왔는데, 그 사용의 역사적인 시기를 (1)창제 시기(세종 원년~세조 말년), (2)정착 시기(성종 원년~임진왜란 전), (3)변동 시기(선조(임진왜란)~경종 말년), (4)간편화 시기(영조~갑오경장 전), (5)각성 시기(갑오경장~8·15 해방전), (6)대성 시기(8·15 해방 이후)로 구분하였다.

## ② 한글 쓰기의 번짐

위에서 구분한 여섯 시기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책들을 내용에 따라 (1)독립스런 쓰임, (2)한문의 뒤침(譯文類), (3)한자의 뒤침(譯字類), (4)외국말의 뒤침(譯語類)의 네 가지 부류로 나누고, 다시 이들을 각각 시기별로 짝지운 다음 그 많은 책들을 서지학적인 고증을 해 가면서 그 내용을 풀이하였다. 국어사적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은 그 특징적인 한 쪽을 사진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풀이는 매우 자세하여, 국어학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한글 갈기의 피어남

이 부분은 우리 글과 우리말의 연구에 대한 역사이다. '훈민정음해례'(정인지 무리), '훈문자회법례'(최세진)를 비롯하여, '훈민정음도해'(신경준), '삼운성휘'(홍계희), '자모변'(황윤석), '언문지'(유 회), '국문정리'(이봉운), 유길준, 최광옥, 주시경 선생들, 이 밖에도 여러 학자들의 우리 글에 대한 학설을 풀이하였고, 특히 '훈민정음도해'(신경준)와 '언문지'(유 회)에 대한 해설은 매우 상세하다.

오늘날 외국의 언어학을 우리말에 적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학자들에 비하여, 우리말 연구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드문 편이다.

이론편은 ①'훈민정음'의 두루 풀이, ②없어진 글자의 상고, ③갈바씨의 세움(並書論), ④한글의 기원, ⑤한글의 세계 글자에서의 자리 잡음, ⑥전주는 한글갈(比較正音學)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가 논문 형식의 글로 이루어 졌다.

## ① ‘훈민정음’의 두루 풀이

첫째 조각은 훈민정음 본문과 훈민정음 언해본을 대조 분석하면서, 언해본에 쓰인 말의 뜻을 풀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붙였다. 둘째 조각에서는 훈민정음의 글자 만드는 기교에 대하여 밝혔다.

셋째 조각에서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맞춤법을 설명하고, 용비어천가의 자료를 보충하여 사잇소리(사이시옷)의 적는 법을 설명하였다. 언해본의 맞춤법은 國의 음을 ‘꺨’으로 한 것과 같은 한자음을 제외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 ㅎ, ㅎ, ㅎ, ㅎ, ㅎ, ㅎ’ 등이 모두 그 당시에 배달말의 소리를 적어 내기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글자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산말의 소리라고 설명하였다.

## ② 없어진 글자의 상고

먼저 훈민정음에 쓰였던 스물여덟 자와 그 차례, 훈몽자회의 스물일곱 자(훈민정음 28자에서 ㅎ이 없어짐)와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스물네 자에 대해 그 차례를 대조한 다음, 옛말의 문헌에 쓰였다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 △, ○, ㅎ’의 소리값을 차례로 풀이하고, ㅎ, ㅎ, ㅎ, ㅎ에 대해서도 붙여서 말했다.

‘·’에 대하여 여러 문헌들에 나타나는 다른 소리로의 변천 과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학자들의 화설을 소개한 다음, 신경준의 ‘·呼時 舌微動唇微啓, 而其聲至輕, 其氣至短’이란 말이 외술 자신이 풀이하고 있는 것과 대략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유 회의 ‘卜一之間’설을 가장 정확한 견해라고 보고, ‘·’는 ‘卜一의 사잇소리’(발음 부호로는 [ʔ])라고 추정하였다.

다음에 ‘△은 ㅅ의 호린 소리’, ‘○은 소리없는 빈 자리를 채워 날내 분위 맞춤 글씨의 모양을 네모꼴로 정제하는 소용을 하는 것’, ‘ㅎ는 극히 가벼운 목청터짐소리’라고 문헌들의 이들에 대한 설명과 이들이 문헌에서 없어져 갔던 과정 등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된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z],[∅],[ʔ]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말에 쓰인 ㅎ은 두 입술을 아주 닫지 아니하고 내는 소리로 목청떨음이 있는 소리임을 인정하였다. ㅎ이 한자음을 적을 때는 입술가벼운소리 [f]라고 하였다. ㅎ, ㅎ, ㅎ, ㅎ은 우리말 적기에는 도무지 쓰이지 않고, 한자의 음을 충실히 적고자 만든 것이며, 역시 입술가벼운소리라고 보았다.

## ③ 갈바씨기의 새움(拉書論)

먼저 초성의 위치에 나타나는 된ㅅ, 된ㅂ, 된ㅃ은 옛말에서나 지금 말에서나 단순히 뒤따르는 닿소리가 된소리임을 표시하는 견해가 있으나, 산스크리트의 소리 표기와 우

리 옛말의 일본 글자 표기, 그리고 우리말에 드물게 남은 자료들을 통하여, 정음 창제 당시에는 제 소리값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며, 그 대다수가 뒤에 차차로 된소리로 변한 것이라고 하였다.

각자병서에 대하여, 정음으로 된 문헌에 쓰인 우리 고유어의 보기들에 나타나는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이 모두 오늘날의 말에서 모두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증거로 보아서, 정음 창제 당시에도 각각 ‘ㄱ, ㄷ, ㅂ, ㅅ, ㅈ’의 된소리였다고 하였다.

‘ㅎ, ㅁ, ㄴ’ 또한 각각 ‘ㅎ, ㅇ, ㄴ’의 된소리라고 하였다. ‘ㅎ’은 목구멍을 바짝 좁히려 가지고 숨을 세차게 내는 소리, 곧 목갈이소리를 매우 되게 내는 소리이고, ‘ㅁ’은 목청을 떨기 전에 혀바닥을 이봉(입천정)에 가깝게 하여서 숨을 얼마쯤 목안에 눌러 쌓았다가 내는 소리, 곧 목청을 떨 적에 특히 힘을 들이는 소리이며, ‘ㄴ’은 오늘날의 닿느니라/[단느니라]처럼 두 홀소리 사이에서 두 개의 ㄴ-소리와 같은 소리로 제바탈을 가진 소리로 보았다.

그리고 같은 두 개의 닿소리 글자를 나란히 하여 된소리를 적는 것은 소리갈스런 근거, 글자갈스런 근거, 심리갈스런 근거가 있으므로, 맞춤법에서 된ㅅ을 된소리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④ 한글의 기원

‘訓民正音’의 제정 및 반포가 세종조에 된 것이요, 그에 관한 적발로는 서문과 ‘實錄’ 등이 있으나, 그 적발이 상세하지 못하고, 또 그 뿌리(기원)가 불분명하며, 당시 한글의 제정 및 반포에 보필의 직책을 맡았던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에 ‘癸亥冬 我殿下創製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라고 하여 그 밑뿌리를 밝게 말하였는가 하면, 그 서문의 끝에는 ‘若其淵源義精之妙, 非臣等之所能發揮也’라고 하여, 그 밑뿌리를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묻어 놓았다. 이리하여 후세의 학자들은 한글의 밑뿌리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해설을 해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글의 기원에 관하여 많은 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전 기원설(古篆起源說), 범자(梵字) 기원설, 몽고 파스파 글자 기원설, 서장 글자 기원설, 바알리(Pali) 글자 기원설, 고대 글자 기원설, 발음 기관 본뜸 기원설, 창문 본뜸 기원설, 태극 사상 기원설 등 여러 가지 기원설이 주장되어 왔다. 외솔은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기 전에 발음 기관 본뜸 기원설을 주장하였고, 해례가 발견된 뒤에 이러한 주장이 바른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외솔은 닿소리와 홀소리가 모두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례에는 ‘ㅇ, ㅏ, ㅑ’는 ‘하늘, 땅, 사람’을 각각 본떠서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 ⑤ 한글의 세계 글자에서의 자리 잡음

세계의 글자 발달은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맺음글자, 그림글자, 뜻글자, 소리글자이다. 소리글자는 다시 날내글자(음절문자)와 날소리글자(음소문자)가 있다. 250여종의 글자 가운데서 한글은 글자의 발달 단계로 보아, 가장 우월한 소리글자이며, 그 중에서도 더욱 나은 날소리글자이다.

다른 글자들은 상형 문자에서 시작하여 차차 발달된 데에 대하여, 한글은 한 때에 지어낸 소리글자요, 소리내는 틀(발음 기관)을 본떠서, 합리적으로 만든 글자이다. 또 한글은 아예부터 민중 교화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난 민주적인 글자인데, 다른 글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한글은 내리글씨와 가로글씨의 성능을 다 갖추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으로 보아 우리 한글은 온 누리에서 가장 좋은 글자라 함이 마땅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 ⑥ 전주는 한글갈

“한글 뒤음은 한글 그것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음이 그 근본 뜻이다. 한글의 지식도 다른 글자와 전주어 보아 그 같고 다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또렷하여지고 확실하여 지는 것”이라고 하고, (1)한글을 온누리 소리표(만국음성기호)로 뒤치기, (2)한글을 로마자로 뒤치기, (3)온누리 소리표를 한글로 뒤치기, (4)일본말의 가나를 한글로 뒤치기를 하여, 한글의 우수함을 밝혔다.

## 7. 맺음말

외술 최현배의 국어학 사상의 위치를 그의 학문의 쌍기둥인 ‘우리 말본’과 ‘한글갈’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았다.

외술은 스승인 주시경의 학문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어 문법의 전반에 걸친 대저서를 전통 문법이라는 하나의 이론적인 틀로 완성한 것이 ‘우리 말본’이다.

하나의 언어 이론으로 음운론, 형태론, 또는 통사론 가운데 하나를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쓴 업적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현대 말 문법 전체가 1930년대 후반기에 ‘우리 말본’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는 것과, 그 때 이루어 놓은 기본적인 문법의 틀이 흔들림 없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다듬어지고 보완되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외술은 이 땅에 언어학파라고는 전무하였고, 15세기에 찬란했던 음운학도 계승되지 못하였으며,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어학이 겨우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 말본을 쓰

기 위하여, 나라 안팎의 수많은 연구 업적을 두루 섭렵하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우리말의 속성에 맞도록 더욱 갈고 닦았으며, 나라 안에서든 밖에서든 얻을 수 없는 지식은 넓고 깊은 사색을 통하여 창안해 내었다.

전통 문법이란 어느 한 시대의 문법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져 간 여러 다양한 언어 이론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사고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전통 문법에 비하면 우리의 전통 문법의 역사는 매우 짧은 것이지만, 외설 문법의 일반 이론에 대한 개방성과 그 수용 능력은 그 후의 국어 전통 문법에 그대로 유전되어, 오늘날의 전통문법 학자들이 기술 언어학, 변형 생성 문법, 기능 문법 등 여러 가지 문법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아무런 충돌 없이 조화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이 땅에 외래의 언어 이론이 국어학 속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는 국어의 전통 문법에 그것이 수용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가름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겨레가 가 이루어낸 지적 산물 가운데 으뜸가는 것이 한글(훈민정음)이므로 이것은 우리의 지적 탐구의 가장 긴밀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논문 형식으로 쓴 책이 한글갈(정음학)이다.

우리의 한글을 떠나서 국제 음성 부호와 같은 음성 문자를 가지고, 국어 음운론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음운론은 순수한 국어 음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국어 음운론과는 따로, 우리는 15세기에 창제되어 훈민정음, 언문, 반절, 한글 등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쓰여 오면서, 우리의 최고의 문화적인 유산인 동시에, 문화 창조의 재료이며, 수단인 우리의 글자의 역사와, 또 그것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사와, 또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우리말의 음운 등을 묶어서 한글갈(정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갈래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꼭 필요하다. 외설의 '한글갈'은 그 자체로도 폭넓고 통찰력있는 업적이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학문 연구의 길을 터 놓았다는 데에 더욱 깊은 뜻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1992), 외설 문법의 외국 문법과의 교섭 관계, 훈민정음과 국어학,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편, 전남대학교 출판부.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 우골탑.

김계곤(1991<sup>~</sup>), 외솔 최현배님의 조어법 서술에 대하여, 東方學志 제70·71 합집,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_\_\_\_\_ (1991<sup>~</sup>), 최현배님의 현대 국어의 조어법 서술에 대한 관견, 훈민정음과 국어학,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편, 전남대학교 출판부.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말본론—, 탑출판사.

김두봉(1916), 조선 말본, 역대 한국 문법 대계 제1부 제8책, 광문사(1983년).

\_\_\_\_\_ (1922), 김더 조선 말본, 역대 한국 문법 대계 제1부 제8책, 광문사(1983년).

김승곤(1992), 국어 토씨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김영송(1975), 우리말 소리의 연구, 샘문화사.

박선자(1992), 자질 체계로서의 한글, 훈민정음과 국어학,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편, 전남대학교 출판부(Geoffrey Sampson(1985), Writing Systems, The Stanford University Press를 추려서 옮긴 글임).

박승빈(1930), 朝鮮語體系一覽.

박지홍(1986), 우리 현대 말본, 과학사.

주시경(1908), 國語文典音學, 역대 한국 문법 대계 제1부 제4책, 광문사.

\_\_\_\_\_ (1910), 國語文法, 역대 한국 문법 대계 제1부 제4책, 광문사(1983년).

\_\_\_\_\_ (1913), 朝鮮語文法, 역대 한국 문법 대계 제1부 제4책, 광문사(1977년).

\_\_\_\_\_ (1914), 말의 소리, 역대 한국 문법 대계 제1부 제4책, 광문사(1977년).

최낙복(1991), 주시경 문법의 연구—형태론의 성립과 그 계승—, 문성출판사.

최현배(1937), 우리 말본(은책), 연회전문출판부.

\_\_\_\_\_ (1940), 한글갈, 정음사.

\_\_\_\_\_ (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_\_\_\_\_ (1962), 조선 민족 갱생의 도(1930년에 처음 나눔).

\_\_\_\_\_ (1970), 한글만 쓰기의 주장(유고), 정음사.

\_\_\_\_\_ (1971), 우리 말본(마지막 고침), 정음사.

허 용(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_\_\_\_\_ (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_\_\_\_\_ (1991), 외솔 선생의 정신 세계와 그 학문, 東方學志 제70·71 합집,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홍이섭(1971), '조선 민족 갱생의 도' 그 정신사적 추구, 나라사랑 I. 야마다 요시오.  
(山田孝雄:1922), 日本文法講義.

Jespersen, Otto(190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7 Vols.* George Allen & Unwin.

Jones, D.(191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Heffer, Cambridge.

Underwood, H. G.(1915),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역대 한국 문법 대계 제2부 제11책, 광문사(1986년).